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

(미가 6:1-5)

원로목사이종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응답하시며 죄의 값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바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산들과 대화하시며 자연을 증인으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 상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와 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2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산과 땅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3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는 교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3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섬겼습니다. 내 일생동안 예수님은 한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은혜만을 베푸셨거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2.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출애굽 사건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4절).

이스라엘은 자력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에 유월절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여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

을 통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가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미7:2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도 잊으면 안됩니다. 영원한 죽음과 암흑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 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주신 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입니다(민 12:4, 6, 8).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한 제사장입니다(민 12:6). 또 미리암은 여성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귀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곧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온 이스라엘 정신을 외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족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3) 광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시딕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5절).

시딕은 요단강을 건너기전 마지막 성이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첫번 성입니다.

그러므로 시딕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딕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이같이 이방 여인들과 잡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왕은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벌써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20(월) ~ 25(토) 새벽 5시-6시 강사: 김성봉 목사

사명자대회가 10월 8일부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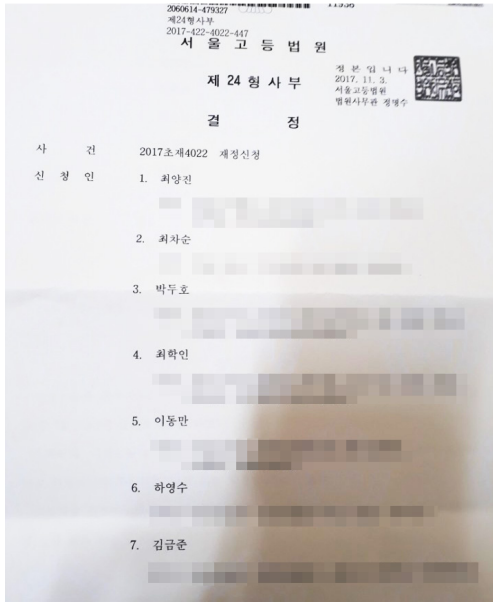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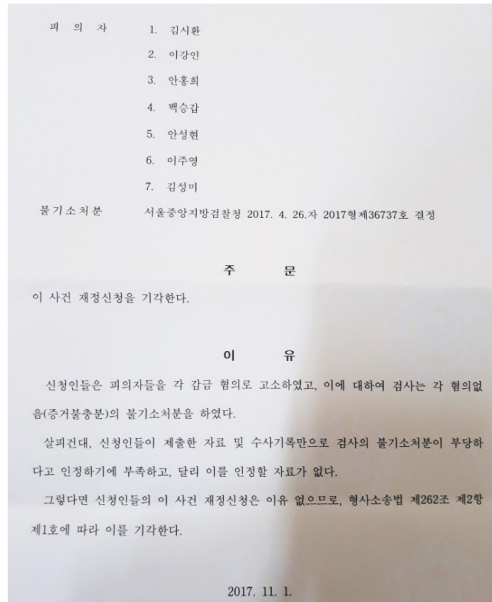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20일(월) 부터 25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김성봉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15일 박노철 목사 감금 고소 사건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



지난 1월 15일 박노철 목사를 감금했다고 박노철 목사측 최양진, 최차순, 박두호, 최학인, 이동만, 하영수, 김금준 장로가 김시환, 이강인, 안홍희, 백승갑, 안성현, 이주영, 김성미 집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 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1,500명 총대들 앞에서 '서울교회 일부 성도들이 박노철 목사를 감금하고 1월 15일 새벽 3시에 나온 목사를 16일 새벽 1시까지 어거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2018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11월 19일(주)까지 / 사무국으로 제출

2018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지난 주 후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1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현영 이관모 김혜란 박성국/백정숙 이옥희/이홍기/이승준 정승자/서대식 김현중3/임규연 송인덕/이홍숙 배재송/임분도 진돈/김경희 최임수/노인숙 이봉선 한은미1 차선혜/강명석/차주호/박수련 김희석/박인선

장창수/박혜정3 김희진 쉼터 한길동 윤요섭/안재희1 박순봉/이효상 무명 1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2017 중·고등부 친구초청주일

11월 19일(주)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중·고등부(중등부 부장 : 김영희 집사 / 고등부 부장 : 정현구 집사)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도의 열의를 놓지 않고 『2017 중·고등부 친구초청』을 진행한다. 일시는 11월 19일(주일) 오전 9시이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

음을 알리고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친교를 나누며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을 권면하며 초대하고자 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참석 바랍니다.



수능기도회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16일(목) 오전 8시30분~오후 5시 40분 / 101호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 504호

2018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임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16일(목) 오전 8시30분~오후 5시 40분

또한 중·고등부는 학부모 기도회를 매 주일 12시 40분 2부 예배 후 504호에서 모이고 있다.



1.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2.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3.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6.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대입 수험생

최 건 김인교 김준교 박희원 송인혁 김은초 황수지 백시진 류형선 김민지 조영훈 김지수 김정인 권태훈 오원준 장지윤 서정덕 송윤희 하준후 김명은 김명찬 한상혁 심재용 신재영 신완서 이은 구현준 김지은 장수미 김건희 김수연 신서호 공지성 이현범 정윤주 서정우 이주호 전제현 이상헌

성도님들은 수능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 WRF(세계개혁주의연합)국제대회 참가기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Wittenberg 대학교수였던 수도사 마틴 루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하신 예수님 공생애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당시 문제가 있는 교황의 죄에 대한 사면권(면제부)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가 등의 질문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Wittenberg 성곽교회 게시판에 붙이고 누구든지 토론을 하자고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올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수도사들만 읽고 있던 라틴어 성경을 종교개혁 한 세기 전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위크리프 교수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여 교황은 그를 투옥시켰고 교황이 얼마 있다 죽자 석방됐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교황을 대항했다고 하여 그의 유골을 파서 화형을 시켰다. 체코의 후스 교수 역시 위크리프 교수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쳤다고 해서 화형을 당한 종교개혁 전야에 순교자가 되었다.

WRF는 종교개혁500주년을 감사하면서 오늘날 도전해오는 문제들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입장에서 숙고하고 소망과 기대를 갖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The Global Impact of the Reformation(종교개혁의 국제적 충격)이라는 주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Wittenberg 루터호텔에서 전 세계에서 초청된 200여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논문발표와 토론과 회의를 거듭했다.

WRF는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든 개혁운동을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하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복음의 핵심과 성경을 자국어로 읽게 되었고 이를 축하와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500년 전의 종교개혁운동의 당위성을 기도하면서 찾아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어서 마침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종교개혁운동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였다. 계속되는 종교개혁운동을 통해 마지막 구원의 소망의 징표를 우리는



루터가 95조항 항의문을 붙인 Wittenberg 성채 교회 앞에서 있는 필자

받아야 할 것을 확인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논문 발제자들로부터 신학 신학교육 포스트모던 시대 이슬람 사회적 문제들 가난과 구제 박해와 불의 등 많은 주제들을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과 신학자들로부터 듣고 토의했다.

WRF의 국제이사회(International Board Meeting)에서 한국의 4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7개 신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10월 20일, 21일 1000여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이틀간 82편의 논문을 읽고 보수와 진보 신학적 입장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토론하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에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개혁자들의 5 Sola(5개 논제)를 함께 고백했다

는 보고를 하자 전 세계가 놀라면서 이번 Wittenberg 대회도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한국교회에 크게 칭찬과 함께 감사를 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예배와 특히 한국에서 특별 초청된 서울 바하합창단(단장:박래창 장로, 지휘:김명엽 교수)의 10월 29일 주일저녁 1시간 동안의 축하공연은 <박정선 장로의 열렸다 하늘문이> 등으로 종교개혁의 성지 Wittenberg의 작은 도시를 감사감격과 박수로 하나님께만 돌린 영광으로 흥분시켰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전 세계에 확산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루터는 개혁자로서 이 일에 횃불을 붙인지 몇 년 후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기독교의 진수를 제시했다.

2017년 10월 31일 500년 전 그날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루터를 통해 큰 은혜를 베푼 독일 국민들은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29일(주일)부터 3일간 축제의 분위기로 도시마다 교회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일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이종윤(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서울교회원로목사 국제올림픽위원회 명예총장)**

육군 제 22사단 진중세례식 11월 18일(토)/오전 6시 30분 교회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에서 주관하는 육군 제 22사단 진중세례식이 11월 18일(토) 오후2시에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는 장병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를 포함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행사를 위해 11월 18일(토) 오전 6시 30분 교회를 출발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기도 바란다.



좁은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주소서

박유진 성도 (청년 2부 회장)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준비시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때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살아 숨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며 남보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 스스로 멎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신 사명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교회와 나라 안팎의 어지러운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손길 그 외의 여러가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자랑하며 좁은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주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속에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신앙의 용사로 자라게 하고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넘지 못할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건너지 못할 강물이 놓여 있어도
 앞에 보이는 현실로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끈끈하게 하옵시고
 다른 이들이 못이룬 일들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잔잔한 물가에서 노는 물고기처럼
 푸른 초장에서 양들처럼 깨끗하게
 자라 미래에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그릇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금주의 사명자대회 성경통독표

11.13 (월)	히12	히13	약1	약2	약3	약4	약5	-
11.14 (화)	벤전 1	벤전 2	벤전 3	벤전 4	벤전 5	벤후 1	벤후 2	-
11.15 (수)	벤후 3	요일 1	요일 2	요일 3	요일 4	요일 5	요일 1	-
11.16 (목)	요삼 1	유1	계1	계2	계3	계4	계5	계6
11.17 (금)	계7	계8	계9	계10	계11	계12	계13	계14
11.18 (토)	계15	계16	계17	계18	계19	계20	계21	계22

▲ '성경통독표는 매주 절취선대로 잘라서 본당 앞 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일(금) 대치동 노인회 경로잔치에서 환영사를 했고 정기당회를 소집했다. 11일(토) 웨스트민스터 릴백총장일행을 영접했고 종교개혁500주년 공동학술대회 평가회 석상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13일(월) 웨스트민스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축도를 하고 13일 14일 이틀동안 웨스트민스터 한국컨퍼런스에 참석한다. 17일(금) 고 김상철장로 기념사업회를 소집하고 18일(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조직신학회20주년감사예배와 학회발표장에서 축사를 하고 감사패를 받는다.

■ 박정선 은퇴장로 (전 단국대 음대학장, 찬송가작가회 공동 회장)은 11월15일(수)오후7시30분에 종교교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사)에서 신작찬송가 발표회를 갖는다.

■ 연주회 : 8교구 장윤식 집사 『장윤식클래식기타 리사이틀』 11월 29일 (수) 오후 7시30분 TCC아트홀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 득녀 : 8일(수) 5교구 이경진 집사 하영인 집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 정인주 집사 김정애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교회제공



김세호 집사 (유아부 부감)

유아부와 유치부는 아름다운 3세~7세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녀로 변화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새 친구들도 늘면서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강남희전도사님의 인도와 교사들의 헌신

아래 유아부·유치부 연합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고 유아부와 유치부로 나누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분반공부와 부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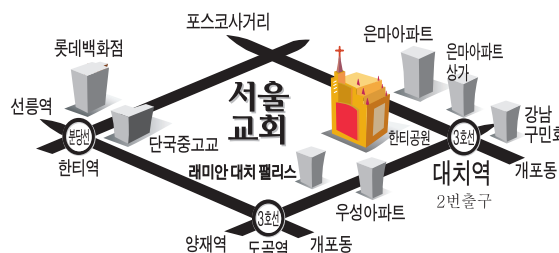
앞으로 더욱 부흥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유아부·유치부가 되도록 기도 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유아부·유치부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교사, 봉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여 섬김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3. 11월 16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